

News

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이 불편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을 위한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월가의 악몽 부른 한국계 큰손 '빌 황'...은행들 11조 물렸다

한국경제

헤지펀드 아케고스캐피탈 때문에 세계 주요 은행들이 최대 100억달러(약 11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1998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가 파산한 이후 최악의 헤지펀드 사고가 터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이 나섰다.

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증금리대출 확대 압박... "계획서 받겠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양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부터 연간 증금리대출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목표치를 담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증금리대출 계획이 이번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대책 발표가 끝나고 계획서 최종본을 제출받아 마무리를 지을 계획

여 △은행 없어졌네 시중은행 지점 50곳 닫는다

매일경제

올 상반기에만 총 50개 넘는 시중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는다.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를 자제하도록 압박하고 폐쇄 절차도 까다롭지만 영업점 폐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은행으로서 매우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지점 폐쇄 결정은 미루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삼성증권 내부거래 금융위가 들여다본다

머니투데이

재벌이면서도 금융계열사를 가진 삼성 현대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 감독규정이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검사권 사각지대였던 재벌 금융사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이 하반기부터는 정당한 검사권 확보에 따라 낱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ABL생명-RGA재보험, 국내 첫 '고금리 보험계약 공동재보험' 계약

연합뉴스

옛 고금리 보험 계약의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공동재보험 계약이 국내서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번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로 ABL생명이 보유한 알리안츠파워보험 계약 일부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ABL생명과 RGA재보험이 공동으로 지게 된다.

'SK바사' 잡은 NH투자증권 주식발행 선두...회사채 전통 강자 KB증권, 이번에도 수성

매일경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시킨 NH투자증권이 1분기 주식발행시장(ECM) 선두에 올랐다. 31일 매일경제 레이더M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ECM(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포함) 시장에서 올 1분기 동안 2조 1161억원어치를 대표 주관해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생명 300만 자사주 취득...취득 전 대비 주가 10% 올라

아시아투데이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월 1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총 300만개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달 29일 기준 미래에셋생명 주가는 지난달 10일 대비 10.47% 올랐다. 이로써 미래에셋생명이 보유한 자사주는 4654만주로, 이는 유통주식수의 23.49%에 해당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